

# 북한출신 전향자 수기 독자들 관심 끈다

김현희 김용 등은 베스트셀러...북한의 '일상생활' 다뤄 인상적

김용, 김현희, 안혁, 강철환, 장기홍...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들도 몇몇 눈에 띄는 가운데 나온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는 소위 귀순한 "전향자"들이란 점과,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의 저자들이란 점이다.

요즘 서점가에는 이들 귀순자들의 수기가 상당수 출간되어 북한의 구체적인 생활상에 목말라하던 독자들의 공금증을 채워주고 있다. 저자의 참신성과 소재의 신선함, 그리고 실황민 등을 예상독자로 겨냥해 고만고만하게 읽힐 것으로 보았던 출판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의 책은 몇십만부씩의 판매량을 보이며 뜻밖의 호조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의외로 상당함을 반증해 주고 있다.

## 김용의 책 이후 다수 출간

북한 귀순자들의 수기가 세인들의 관심사로 오르내린 것은 아마 김현희의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고려원, 90년간)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행복했던 어린시절, 혁명전사가 되어 훈련받던 시절, 일본여인 리은혜로부터 일본인 교육을 받아 마유미로 변신하고 KAL기를 폭파하러 떠나던 이야기 등이 실린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26년간 같고 닮아온 사상을 한순간에 털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미련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수기를 쓰고 싶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보람으로 느끼게" 되기까지의 변화해 가는 과정들이 진솔하게 기록한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을 흘립니다"와 최근에는 "작가가 미야모로 테무의 소설 「사랑은 혜성처럼」을 고려원에서 번역하기도 했다.

김현희의 책이 귀순자들의 수기에 독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갖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면, 김용의 책은 이들 책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실제로 귀순자들의 책이 이토록 다양하게 쏟아지게 된 것도 김용의 「머리를 빼는 남자」(자작나무, 92년 10월간) 이후의 일이다. 유천수 외 9인의 「안경없는 군대이야기」(의암)가 93년 7월, 오길남의 「김일성 주석 내 딸과 아내를 돌려주세요」가 2월, 장기홍의 「울음보가 터진 남자」가 8월, 그리고 안혁·강철환의 「대왕의 제전」이 7월 등 「머리를 빼는...」에 자극받아 출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용이 자신의 귀순 1주년을 맞아 펴낸 「머리를 빼는 남자」는 남한생활 1년동안 그가 겪은 실수와 에피소드,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북한의 생활상을 특유의 유머감각을 발휘해가며 흥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예를들어, 「머리를 빼는 거지 감는 건가?」에서는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다가 이발사가 우선 머리부터 감으라는 말에 깜짝 놀랐던 일을 적고 있다. 북한에서는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파마를 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빼라고 해야 맞기 때문이었다. 또한, 남한의 연예계 생리를 모르는 그는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를 좋아해 떠벌리고 다닌 것이 「노사연과의 결혼설」로 오해를 받아 신문에 오르내리는 등 흥역을 치르기도(「김용은 외롭지 않다」 중에서) 한다. 또한, 「오염없이 순진한」 북한남자의 눈에 비친 남한여자들의 찢어진 청바지(「바람난 여자와 미니스커트」 중에서)와 울퉁불퉁한 몸매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남조선의 꼴볼견 베스트10」 중에서)에 질겁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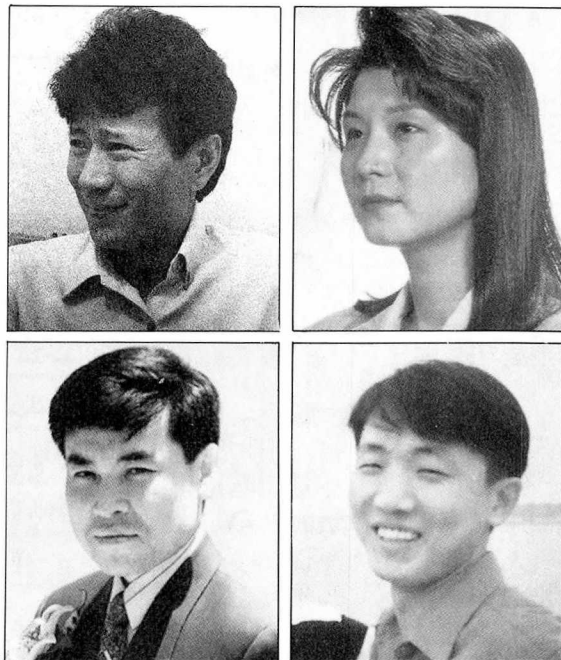
이처럼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김용의 수기는 다른 귀순자들의 글이 다소 어둡고 사회고발적인 데 반해 밝고 희망찬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가슴뭉클한 대목도 있다. 30만부라는 예상밖의 호응에 힘입어 최근 「빨래 하는 남자」(자작나무)도 펴낸 김용은 '재미있고 솔직한 북한이야기'란 부제에서도 밝혔듯 첫책권의 개인사 외는 달리 북한의 생활상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쓰고 있다.

## 집단수용소·군대·별목장 등 소재 다양

집단수용소에서 만나 중국으로 탈출,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철환과 안혁의 수기는 「대왕의 제전」(향실)이란 제목으로 3권짜리의 두툼한 부피로 나와 있다. 영화나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추진중인 이 수기는 1권 「병풍산 통곡소리」에는 강철환의 이야기가, 2권 「지옥에서 부르는 노래」는 안혁의 이야기가, 3권 「그리운 어머니」에는 강철환과 안혁이 만나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에서 고생을 하다가 남한으로 귀순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썩어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김현희의 가족들을 수용소에서 만난 것을 비롯해, 귀순 간첩 오길남씨의 부인 및 두 딸도 수용소에

요즘 다수 출간되는 귀순자들의 수기는 기왕에 나왔던 책자들에서 보여줬던 비판일본도의 내용구성과는 달리 관료사회나 군대이야기와 같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문을 비롯해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나 직장생활 등 소소한 일상사를 적고 있어 독자들이 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위 왼쪽부터  
김용 김현희 장기홍 안혁.



간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오씨로 하여금 「김일성 주석 내 딸과...」(자유문학사)를 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귀순자 10명의 북한에서의 군대생활 이야기를 담은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는 그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6월말 출간 이후 메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책. 김광춘(개성 대덕산 민경대대 특무상사) 이덕남(인민군 4군단 70 정찰대대 상사) 이정희(러시아 원동별목장 운전기사) 등이 들려주는 북한군의 실상은 엮은이(김군대, 방송작가)의 말처럼 학생시절 반공교육의 결과로 이미지지워졌던 「머리에 빨이 달렸거나」 「빨간 얼굴의」 집단이 아니라 남한의 군대와 다를 바 없는 훈련과 기합, 전우애, 군생활의 애환이 범벅된 남성들의 집단이다. 다만, 남한의 군대와 차이점이라면 「북한의 군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혜택받은 자들이 가는 곳, 지원제, 10년의 복무기간, 외박이나 외출이 거의 없고, 안경을 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전역후 출세가도에 서는 일등신랑감으로 꼽히는 곳」이라는 것.

이 책에는 군대 이야기 외에도 북한 불량배들의 생활, 거지들의 무리, 암시장의 뒷거래, 북한의 출퇴근 풍경과 직장풍속 등도 보여준다. 한편, 그들이 비교해 보는 남북한의 사회 모습과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실패담, 그리고 「오히려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쪽 사람들이 배워야 할 좋은 점도 많다」는 등 귀기울일 충고도 담고 있다.

시베리아의 한 별목장에서 일하다 헝가리로

탈출, 귀순한 장기홍씨가 쓴 「울음보가 터진 남자」는 소련 하바로브스키 일대의 북한 별목장의 가혹한 노동현장을 고발하는 체험담이다. 저자 자신이 「세계 최고의 인권불모지」로 지칭하는 이곳은 북한에서는 이른바 해외취업의 명목으로 뺨과 뇌물을 써야만 갈 수 있는 선망의 취업이기는 하나 실정은 「문도가네 같은 통제와 착취」 「공산사회의 썩은 냄새가 전편에 풍기는」 참혹한 노동현장이다.

## 한 저자가 너무 많은 내용 다룬 것 경계

요즘 발간되는 이 수기들은 그동안 발간된 귀순자들이나 북한관련 책자들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북한생활상과 비판일본도의 내용구성과는 달리 관료사회나 군대이야기와 같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문을 비롯해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나 직장생활 등 소소한 일상생활상 등을 밝히고 있어 일반독자들이 별 거부감없이 읽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들의 글이 북한사회의 실상을 얼마나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간접적인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될 텐데, 아쉽게도 이들 책이 「가볍다」는 선입관 때문인지 읽어본 학자들이 드물었다. 다만,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의 여성생활」(남남) 저자이기도 한 이은숙(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남한 독자들의 구미에 맞게 미화되었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 정혜옥 기자